

똑딱이는 가라… ‘하이브리드’ 디카 나간다



삼성 NX10



올림푸스 PEN



소니 NEX-5



파나소닉 DMC-GF1

전문가용 고성능 + 무게 줄인 휴대성으로 소비자 유혹

올림푸스·파나소닉·소니 외국기업에 삼성까지 4파전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DSLR카메라와 일명 똑딱이(콤팩트) 카메라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디지털카메라 시장에 복병이 나타났다. 전문가용 디카의 고성능과 소지하기 쉬운 콤팩트 디카의 장점만을 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카메라가 바로 그것. 지난해부터 출시가 된 하이브리드 디카는 현재 무서운 속도로 판매되며 큰 인기 끄는 등 이로 인해 카메라 시장의 질서가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디카는 고성능은 유지하면서 크기와 무게는 대폭 줄여 휴대성을 높인 신개념 카메라다. 뿐만 아니라 고급 품질이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까지 사로잡으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메라의 명가인 니콘과 캐논을 제외한 올림푸스·파나소닉·소니 등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디지털이미징의 4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디카의 선봉을 이끈 건 올림푸스 'PEN EP-1'. 지난해 7월 출시된 '펜'은 예약판매 5시간 만에 1000대가 팔리는 등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DSLR 카메라의 대형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고도 두께는 절반이 줄지만, 성능은 DSLR 못지 않다. 렌즈 교환도 가능하며 무게는 불과 335g. 1230만 화소의 4분의 3인치 고속 라이브 MOS 이미지센서를 장착했으며 ▲영상 처리엔진 트루피V 탑재 ▲초당 3장의 고속 연사와 HD동영상 촬영기능 ▲팝아웃, 흑백 등을 표현하는 '아트필터' 기능 등을 갖췄다. 특히 구매자 중 52%가 여성 소비자로 나타나면서 여성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파나소닉도 지난해 12월 '루미스 GF1'을 출시했다. '루미스 GF1'은 내장 플래시를 장착했으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 디카에 탑재된 '인텔리전트 오토 시스템'을 'GF1'에 적용했다. 최근에는 신제품 'G2'를 선보였다. 'G2'는 DSLR 최초로 터치패널 및 터치 셋터를 탑재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조작과 촬영을 보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소니코리아가 지난 6월 판매하기 시작한 하이브리드 카메라 '네스'는 최근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이 제품은 무게가 229g으로 매우 가벼운 게 특징이다. 고급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고 초고화질(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디지털이미징이 올초 선보인 하이브리드 디카 'NX10'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제품은 두께와 무게가 각각 3.9cm, 353g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40% 이상 줄어들었다. 1460만 화소로 초당 3장(버스트 모드는 초당 30장)의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각 업체에서 애심차게 하이브리드 디카를 내놓으면서 국내 디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은 올 상반기 23%에 소니의 '넥스' 출시 이후 30%를 넘어서었다. 내년에는 점유율 50%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광주 금호월드 관계자는 "젊은층은 물론 여성들에게 편리성이 인기를 끌고 있어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에서 앞다퉈 제품을 내놓을 것인 만큼 디자인보다 기능을 잘 따져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신기자 kps@



니콘미미징코리아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니콘 DX 포맷 보급형 DSLR카메라 D 3100 및 렌즈 4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인공 육류 만들어야 90억 인구 먹여살린다

금세기 중반 90억명에 달하는 지구촌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인공 육류 등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유명 과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수석과학자 존 베딩턴 등 유명 과학자들은 영국학술원이 펴낸 논문에서 2050년까지 지구환경 훼손 없이 90억명을 제대로 먹여려면 인공 육류 생산 등이 필요하다며 신기술 지원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과학자는 특히 미래의 식량공급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점검한 결과 유전자 변형과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이 동원되더라도 기후변화와 물 부족, 식량 소비량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울어지면서 여전히 수액명

이 짚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식량증산을 위한 더욱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재래식 가축사육 방식으로 지금보다 2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유제품 및 육류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식량생산 확대를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도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경제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녹색혁명을 위해서는 농업연구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몬산토 등 7개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 기술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조기 노화’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일찍 늙어버려 제대로 못쓰게 되는 이유를 국내 연구팀이 세계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에 따라 성체줄기세포를 질병치료에 이용하는데 최대 난점으로 꼽혀온 ‘조기노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강경선 교수팀은 성체줄기세포의 노화에 기준에 추정했던 것처럼 선천성 유전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후성기 유전적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 노화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이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세포 및 분자 생명과학(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 최근호에 두 편의 논문으로 잇따라 게재됐다.

연구팀은 무엇보다 이번 성과에 따라 성체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길을 연 것은 물론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의 노화현상뿐 아니라 사람의 노화현상 자체를 규명할 수 근거를 찾았다는 데서도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의 노화는 몸의 재생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고, 이런 재생기능과 관련된 각 조직이나 장기에 분포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인데, 노화과정에서 성체줄기세포의 기능과 수자가 줄어들면 이게 곧 노화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KT ‘스마트폰 라이프’ 개설



KT는 연예계와 패션, 미용 부문에 종사하는 유명인들 가운데 스마트폰 ‘파워유저’로 익히 알려진 이들의 스마트폰 활용법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스마트폰라이프’ (<http://www.smart-wifi.co.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구준영, 김창렬, 데프콘 등 가수들과 뮤지컬 배우 임혜영, CF모델 정아영, 작곡가 정민우 등 48명의 유명인 인터뷰 영상과 활용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스마트폰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경찰상기자 kps@kwangju.co.kr

NHN 레드닷 어워드 본상 5개 수상

NHN은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 2010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중 총 5개의 레드닷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NHN은 기업디자인(NHN CI), 이벤트 디자인(2010 네이버 쉬프트 행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연자보고서(NHN 연자보고서), 편집·출판(그린팩토리 스토리북) 등의 부문에서 수상했다.

NHN은 또다른 3대 디자인 공모전인 이프 커뮤니케이션 어워드에서도 NAVER 그린원도우 브랜드 경영 디자인, 네이버 스토리 사이트, 네이버 트렌드 연감 2009 등 모두 9개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SKT ‘독도 라이브 앱’ 선보여

SK텔레콤은 광복 65주년을 맞아 ‘독도 라이브’ 애플리케이션(T스토어)을 통해 무료로 선보인다. ‘독도 라이브’ 앱은 KBS 인터넷 뉴스팀의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 독도 연구소(www.dokdohistory.com), 사이버 독도(www.dokdo.go.kr)에 담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도 전문 앱’이다.

이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독도의 역사, 관광 명소, 생활하는 등·식물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HD 파노라마 라이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도의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독도 라이브’ 앱 이용 고객은 독도의 명예 주민도 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사이버 주민번호와 유통도 사이버 주민 주소가 적혀진 ‘사이버 독도 주민증’이 발급된다.

SK텔레콤은 사이버 독도 주민증을 발급받은 고객们 중 15명의 명예 흥보대사를 선발해 독도 탐방의 기회를 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T스토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9월 29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상기자 kps@kwangju.co.kr

아담공인중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 서구 박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관련시설 차고지 기타

함평 손불리 전원주택(교환가능)
• 함평군 손불면 원천리 인암해수욕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 가능판.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매가 9억

상촌동 나대지
• 서구 상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 진입로 매매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직지

호남대(서봉) 부근 자연녹지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역 3,458㎡(1,046평) 3.3㎡당 11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원료 조망향호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
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회암동 대지 433㎡(131평), 전 1인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 800만원, 조망 경관향호

건물구함(병원, 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 1,000평이상

☎ 062-233-2222 / 010-3616-8698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둘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이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월동 콘 공업지역
• 광주 서동 대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주 동 도로변 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별공사지가 6억, 대지 3~3억7천만원 가능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 센터, 사옥 적합

▶ 마륵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1호선 광진역 부근 대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8천만원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 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나주 남 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접공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 건물 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 삼가 매매
• 상촌동 대지 367㎡(110평) / 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로 보증금 1억7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 공장·창고·건물 매매
• 광산구 우신동 대지 2975㎡(900평) / 건평 594.5㎡(180평)
비즈니스센터 진입 가능 대지 7.5평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대인동 4층건물 식당·사무실·월류·주택 대지 121평 건평308 평면지가 4억원 대출33평 교환가능 5천원

• 금남로 51번지 대지 630㎡ 152평 평면지가 4억3천 미도5억
건물은 50평과 101평 2층 있음.

• 탑양동 산업지역 246㎡ 평면지가에 매도 1억8천만원
증정 51㎡ 버스도로 대지 108평 건평 32평 매도 2억1500

• 불천동 대형상점 대지 538㎡ 건평 160평 지상 2층
내부 12층 대지 103평 건평 336평 건축가능한 평면 9억4천원
증정 367㎡ 대지 50평 지상 2층 건평 85평 지도 5922평